

본회, '95 임원·지부장 연수회 성료

-추용진 기자-



경주 유스호스텔에서의
'95 임원·지부장 연수회

본회, 제15차 임직원 연수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유스호스텔에서 실시됐다.

이번에 실시된 임직원 연수회는 임원, 지부장 그리고 각 지부직원 등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부관리 요령을 습득하고 회원간 친목도모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연수교육중에서 미국사료곡물협회의 박영인 회장의 협회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와 안덕수 축산국장의 축산 시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회원들의 축산 시책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종합 토의, 신입지부장 소개, 친선의 밤, 나도 한마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

행되었다.

단합을 위해 마련된 임직원 연수회

연수회는 임원·지부장 및 직원들이 등록을 마친 후 입소식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입소식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며칠전부터 돼지고기가격이 하락되었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입 쇠고기, 돼지, 닭고기가 계속 방출 중에 있으며, 엔고 및 원화 절상 등의 장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때일수록 회원 여러분은 일치단결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연수 교육전의
입소식 전경

극단적 이기주의, 지역 패권주의에 빠지지 말고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임직원 연수회는 새로운 지부장님과 임원님들과 함께 협회의 추진하는 일과 역할을 알려드리고 단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우리 양돈인들이 빠른 시간내에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연수회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료곡물협회의 박영인회장은 「협회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강연했다. 박영인회장은 강의에서 "우리 경제사의 모든 경영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소의 정통적인 경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농업 경영은 삼장 즉, 농장, 공장, 시장의 통합을 하지 않는 한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단독 경영의 돼지사업은 종돈, 도축, 경매, 유통, 가공 등 개별 단독 경영체에 의해 이뤄졌으나 국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비만을 따지는 경영이 아닌, 생산, 유통 및 판매에서 통합적인 경영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수 축산국장은 90분 동안 축산시책을 설명했는데 "돼지는 가장 안정적인 축산시장이고

돼지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가까이 있어 지리적인 요건도 좋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돼지고기 수출 1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2백 5십만두를 추가 사육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의 기본적인 사육기반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사육기술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일본에 대한 수출을 점차 늘려 나가야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시설 부문 즉, 사육시설 확대부문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지원의 우선은, 노력하는 지역단체, 노력하는 농가에 먼저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축산국장은 사육규모 기반확충을 위해서 시설공급문제, 종돈문제, 질병문제, 잔류물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내년부터 돼지고기내에 유해성 잔류물질이 농장에서 발견이 되면 보상후 폐기가 아닌, 유통이 안되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할 것이며 농가도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고 휴약기간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이 축산국장에게 질문과 건의사항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은 축사시설 융자금 장기저리, 융자담보 문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축사시설을 건설부와 협의하여 확대해 줄 것, 축산 공무원의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농장



축산시책을 설명하는 안덕수 축산국장



박영인 회장의 강의 모습

실습을 하도록 할 것, 축산 단지 또는 개별농가가 축사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는 축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양돈업허가 상한선을 늘리려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 축산폐수 배출 허가 기준 1,000m² 이상은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두수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축산기자재 규격화와 도축장 시설 자금지원, 도축장 시설 확대 등 많은 건의가 나왔다.

이에 안덕수 축산국장은 설명 및 대안을 제시했고 “그밖의 질의는 협회에 문의를 하면 협회를 통하여 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지부운영 사례 발표

이어서 김위진 김해지부장의 효율적인 지부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에서 김해지부의 운영과 협회 홍보사례, 태국 현지 출장보고, 냉장육 유통기간 연장에 대한 미국의 공략, 한국수출입협회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위진 지부장은 “제도도 인하여 수출을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하고 “전국 양돈단지에서는 수출규격돈을 만들기 위해 노동력이 더 투입되고 돼지사육도 같은 공간에 보다 적

은 돼지를 키우고 있으나 이익은 더 적다”고 하면서 “도체등급시에 90kg적용 도체등급판정을 개정하여 수출규격돈(115~120kg)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부장은 “돼지를 산육적으로만 개량하다보니 부계쪽의 돼지를 기초 모돈으로 쓰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계쪽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기초 모돈으로 써야 생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현 돼지 개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신입지부장들의 소개와 노영한 전무이사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종합토의에서 현재 축산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진공포장육 유통기한 연장, 원료사료 가격 인상, 달라 하락과 원화가 올라가는 원(W)고문제, 유해물질 잔류문제와 분뇨처리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첫째날의 마지막 행사로 레크리에이션을 갖고 참석자들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게임과 참석자들의 노래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양돈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다음날 시작된 「나도 한마디」시간에는 지부별 성공사례 및 협회에 바라는 요구 사항 및 김찬채 이사가 “부산물 사료의 효율성 고찰”을 발표하여 사료 사용으로 사료비를 절감, 잔반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2일간의 임원·지부장 연수교육을 폐회식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치면서 최상백 부회장은 “모든 교육·연수과정을 지부월례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보급과 전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협회는 보다 많고 새로운 내용을 보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명복 부회장은 “단결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우리 양돈인 전체가 평등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양돈협회라는 한 배를 탄 우리 모두가 양돈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연수회는 경상남도 협의회(도협의회장 : 하오조)와 축산신문사 윤봉중 사장이 협찬금 전달하였다.

각 참가자들은 화려했던 왕가들의 신라, 이제는 그 은은한 자취만 남아있는, 경주를 뒤로 하고 연수회장을 나섰다. 단합된 마음을 가지고 양돈업계의 현안문제를 넘어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인공수정 기술을 배우는 곳!

김해 AI센타 대표: 박삼곤

높은 성과를 내고있는 김해 A·I센타가 합리적인 양돈 경영을 위한 AI, F₁ 생산을 위한 번식성적 극대화의 삼광요크셔 농장이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하면 상세히 대답하겠습니다.

- AI기구 판매 및 소개
- 기술 컨설팅
- 정액보급
- 요오크셔 우 ♂ 분양

김해 A·I센타 삼광 요오크셔 종돈장

전화 : (0525) 42-7756/42-6608

FAX : (0525) 42-6609